

SELF-INTERVIEW / 셀프 인터뷰

서울, 2026년 6월 — 할로우젠이 묻고 할로우젠이 답하다

01

정체성과 철학

Q — 정체성과 철학에 대하여

정체성과 철학은 따로 의미부여하는 점은 없다. 그저 순수하게 좋아서 시작했고, 그 마음이 각자의 파트에 녹여 하나로 모여 전달하는 방식이 된 것 같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Q — 음악을 만들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두려운 적은 없었고, 언제 어떤 시기에 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음악에 몰두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고, 최대한 시간이 날 때마다 충실했던 것 같다.

전 작품들보다 좋아야 한다는 건 딱히 없었고, 현재 준비 중인 앨범의 주제가 '희망'이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 스타일로 풀어낼지가 고민이다.

Q — 할로우젠의 음악은 현실 도피인가, 현실 직시인가?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곡들을 돌아보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둘 다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끝엔 수용하게 되고, 어떤 땐 절망들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되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다.

Q — 지금까지 만든 곡 중 가장 개인적인 상처가 담긴 곡은?

1집의 'Out of Existence'다. 밴드가 탄생하고 가장 처음으로 만들었던 노래였다. 당시 겪고 있었던 취업이나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일들을 가사로 옮겼다.

Q — 멤버들 사이에 가장 크게 충돌했던 음악적 의견은 무엇이었나?

다 같이 결정하는 편이라 다수결로 따라가는 편이다. 누구 하나가 '이건 무조건 하자!!'라고 하면 딱히 그 부분에 있어 수긍하거나 빠르게 포기하거나 정리하는 편이라 충돌은 없었다.

Q — 지금의 할로우젠이 과거의 할로우젠을 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

초창기 때는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의 느낌이 강했다. 정리가 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정리가 되는 것 같다가도 되지 않는 기분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경험이 쌓이고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멤버만 바뀌었을 뿐 변한 건 딱히 없는 것 같다. 미세하게 바뀐 정도랄까? 평가 내릴 게 없는 듯하다.

Q — 버려진 곡들 속에 오히려 더 솔직한 할로우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버려진 곡들이라고 하기보단 당시의 바이브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선택되지 못했다고 하고 싶다. 그 선택되지 못한 곡들 중엔 지금도 기억나는 곡도 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재정비를 해서라도 연주를 하든 앨범에 실든 하고 싶다.

그만큼 미련이 있다는 건, 할로우젠의 정체성에 큰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싶다.

02

음악 산업과 씬

Q —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고민한 적이 있는가?

솔직히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적은 없는 듯하다. 최근 발매한 'Dreambound Tides'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발매했던 곡들과는 조금 다르게 대중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다. 그렇지만 이걸 처음부터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단 살을 붙이다 보니 필요한 것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그동안 나왔던 곡들에 비해 너무 대중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했다.

2019년도부터 3집의 주제는 '희망'으로 정했기 때문에 곡을 만들고 작사를 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나와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만의 방식을 가지고, 대중적인 느낌이든 예술적이든 우리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술성을 가진 밴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보컬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대중성과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Q — 스트리밍 시대는 음악가에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음악이라는 게 사실 듣고, 즐기고, 감정을 녹이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들어야 하고, 좋든 나쁘든 그 음악이 공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밴드나 가수가 존재하는 건 음악이 알려져야 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니까.

요즘 시대에 스트리밍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지컬로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고, 또 그만큼 음악 산업이나 과학이 발전함에 있어 여러 가지 편리성을 따지면 스트리밍은 분명 필요하다. 단,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률 배분 문제를 비롯한 수익구조는 분명 잘못됐다고 본다. 필요악이 되어 버린 건 아닌가 싶다.

Q — 할로우젠이 씬에 남기고 싶은 흔적은 무엇인가?

무얼 바랄 것은 없다.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03

공연과 관객

Q — 공연 중 관객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란다고 하면, 지금까지 관객분들을 봐왔던 경험으로는 각자의 감정, 경험 등을 공연을 직관하시면서 느껴지는 대로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다. 같이 곡을 불러도 좋고, 묵묵히 음악을 들으셔도 좋고, 같이 뛰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하셨으면 한다.

Q — 무대 위에서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집중하기 위해 향을 피우기도 하고, 맨발로 공연에 임하거나 관객을 등진 채 감정에 집중하기도 한다. 아마 그때의 공간과 기운이 느껴질 때가 아닐까 싶다.

Q —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공연과 모두가 환호하는 공연 중 무엇이 더 두려운가?

두려운 건 없는 것 같다. 반응이 없어도 우리고, 환호를 받는 것도 우리다. 우린 그저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뿐이다.

Q — 할로우젠의 음악을 듣고 누군가 삶이 바뀌었다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죄송할 것 같다. 이유를 이것저것 가져다 붙이고 싶지는 않다.

04

개인과 예술

Q — 음악이 없었다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 같은가?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때 되면 여행 다니면서 소소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Q — 예술은 치유라고 생각하는가,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는 행위라고 생각하는가?

치유라고 생각한다. 일상의 경험에서 겪은 것들을 위로받는 순간들의 쾌감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Q — 자신이 만든 음악을 듣기 싫어지는 순간도 있는가?

한 곡을 집중해서 만들다 보면 그 노래만 하루 종일 귀에 꽂고 듣는다. 믹스&마스터가 끝나고 곡이 발매되는 그 순간부터는 곡을 거의 듣지 않는다. 이미 많이 들어서 곡은 거의 다 외워졌기 때문에, 싫다기보다는 지쳐서 안 듣게 되는 것 같다.

05

미래와 유산

Q — 할로우젠의 마지막 공연이 열린다면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공연을 하는 우리나라 관객 모두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겼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떠나고 싶다.

Q — "할로우젠은 결국 어떤 밴드였나?"라는 질문에 미래의 당신은 어떻게 답할 것 같은가?

누군가를 대신해 울어주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했던... 낮은 곳에서 큰소리를 내어주던 밴드로 기억되고 싶다.

HOLLOW JAN — 셀프 인터뷰, 2026년 6월 · 서울 · 포스트룩 / 스크리모, SINCE 2003

EPK & 프레스 포토 → HOLLOWJAN.NETLIFY.APP

BOOKING · MANAGEMENT · PRESS — EOW (SEOUL) JI@EOW.CO.KR · 3C TOUR (FRANCE) JC.MEDINA@3CTOUR.COM